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장애아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조 지 연

2016년 8월

장애아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김 성 봉

조 지 연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6월

조지연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년 8월

<국문초록>

장애아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조 지 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는 장애아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장애아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가?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특수학급, 특수학교, 장애전담어린이집,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하는 어머니 총 1,154명을 확률적 표집방법인 층화무작위 표본추출법과 비비례할당법을 활용하여 400명을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400명 중 249명의 자료가 회수되어 62.25%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 등을 제외한 238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어 자료 유효율은 59.5%를 보였다.

조사도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20.0에 의해서 처리되었다. 전반적인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자료의 이상치, 정규성을 검토하여 각 변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 각 변인별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Cronbach's α 값을 검토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양육효능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완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장애아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양육효능감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 두 변인들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완전매개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상담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장애아 어머니,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 매개효과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5
3. 연구모형	6
4. 용어 정리	6
가. 장애아 어머니	6
나. 사회적 지지	6
다. 자아존중감	7
라. 양육효능감	7
II. 이론적 배경	8
1. 장애아 어머니	8
2. 제주특별자치도 어머니	10
3. 사회적 지지	11
4. 자아존중감	13
5. 양육효능감	14
6. 선행연구 고찰	16
가.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관계성 연구	16
나.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 관계성 연구	17
다. 자아존중감과 양육효능감 관계성 연구	19
III. 연구방법	21
1. 연구대상	21
2. 연구 절차	26
가. 표본선정	26
나. 자료수집 방법	26
3. 측정 도구	27
가. 사회적 지지 척도	27

나. 양육효능감 척도	28
다. 자아존중감 척도	29
4. 자료 분석	30
IV. 연구결과 및 해석	32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32
2.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	33
3.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34
V. 논의	38
1. 주요 연구 결과	38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41
참고문헌	43
Abstract	53
부록(설문지)	55

표 목 차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장애아 정보)	22
표 III-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부모 정보)	24
표 III-3. 사회적 지지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8
표 III-4. 양육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9
표 III-5.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30
표 IV-1.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량	33
표 IV-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34
표 IV-3.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36

그림 목 차

그림 I-1. 연구모형	6
그림 IV-1.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3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내 아이 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 주세요!’

이 말은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가 자신의 부재 시, 장애 자녀에 대한 양육을 걱정하여 호소하는 장애아어머니의 한 맺힌 절규이다(중앙일보, 2015. 5. 7.).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생기는 감격과 기쁨을 맞이하는 부모는 예상치 않았던 자신의 아이가 장애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깊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Hall(1990)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에서 장애 자녀의 출생은 부모의 희망과 기대를 무너뜨리고 심한 상실감과 슬픔을 야기하며 가족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적응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장애아의 부모는 장애아의 출산으로 인한 충격, 부정, 분노, 슬픔 등의 정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죄의식과 자기비난을 하게 된다(Nixon & Singer, 1993).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장애의 다양한 특성, 예를 들면 자녀의 과잉행동, 낮은 지능, 부족한 사회성, 신체 및 정신적 기능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양육역할에 대해 어려움을 경험한다. 또한 부모는 장애 자녀의 미래에 대한 계획 수립에서 오는 불안과 혼란, 스트레스(Dyson, 1993; Seltzer et. al, 1993)와 장애자녀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되고 사회적 고립과 낙인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부부갈등과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실제로 장애아의 양육부담은 장애 유형이 무엇인가에 관계없이 장애아의 부모와 가족들에게 특수하고도 지속적인 어려움을 경험(Crnic et. al., 1983; Harris & Mchale, 1989) 하는데 장애아를 둔 부부들은 정상아를 둔 부부에 비해 2~3배 수준 이상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배관웅·송상천, 1986).

특히, 장애아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에서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양육 스트레스에 있어서 장애아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62%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박은신, 2004). 장애아 어머니의 경우, 아이를 임신

하여 출산하고 양육하기까지 주된 역할을 담당하면서 스스로 느끼는 심리적 실패, 좌절, 우울, 분노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자신과 주변세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바라보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김은연, 2005). 또한 장애 아동 어머니는 비장애 아동 어머니에 비해 걱정이나 불안이 높고, 우울 증상이 많을 뿐 아니라 부모로서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적다. 그리고 자녀 출생 후 실제 자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했다고 보고하는 비율이 높다(전재명, 2012).

반면, 모든 장애아 어머니가 부정적인 경험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아 어머니들이 가족생활의 변화, 재정문제, 정서적 불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부정적 영향으로 지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험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즉, 장애아 어머니들은 장애 자녀로 인하여 배우자, 가족 구성원들과 그들의 문제를 공유함으로써 더욱 친밀해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Singer & Farkas, 1989). 자녀의 ‘장애’라는 스트레스 원인은 같아도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수준과 문제 해결 능력은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애아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있어서 일반 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머니 보다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김선옥·김성훈, 2014).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장애 유형(김용진, 2004; 안진아, 2005), 인구사회학적 변인, 우울, 사회적 지지(이원령, 2011; 이도경, 2013; 이소란, 2000), 자아존중감(구일숙, 2008; 박내천, 2007), 가족탄력성(김자경, 신서영, 2012; 김은서, 2012), 양육효능감(Levy-Shiff et al., 1998; Scheel & Rieckmann, 1998; 신숙재, 1997; 안지영, 2001)등 다양한 요인을 들 수 있다. 이는 동일한 환경에서도 개인이 지각하는 변인에 따라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장애 아동을 대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양육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양육효능감을 들 수 있다. 양육효능감(Parental Efficacy)이란,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자신의 지각을 말한다(Johnston & Mash, 1989). 또한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을 예측할 수 있는데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양육효능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utrona & Troutman, 1986; Gross et al., 1994; Dumka et al., 1996). 뿐만 아니라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을 많이 나타내고 이러한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사회적,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부모와 아동의 심리적 안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하였다(Dorsey et. al., 1999).

따라서 장애아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장애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발달장애아에 대한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최인경, 2008). 이러한 양육효능감은 여러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장애아 양육에 대한 반응 역시 부정적 적응에서 긍정적 적응까지 장애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의 반응 정도도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여러 보호자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 중 장애아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한 보호요인 중 심리적 외적 보호자원인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를 들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가족, 친구, 이웃 등 타인과의 관계에서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한다(신숙재, 1997).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질적인 양육을 제공하기 위한 부모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는데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촉진한다(Belsky, 1984; Crnic & Greeberg, 1990). 또한 사회적 지지는 장애아 부모들이 위기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도록 도와주고 장애자녀의 양육 시 수반되는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돕는다(Cohen & Wills, 1985).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은 부모들은 높은 수준의 양육효능감을 나타내며(Cutrona & Troutman, 1986), 양육역할에 대해 보다 즐겁게 생각하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건강한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경향이었다고 한다(Corse et al., 1990). 또한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다는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다(박내천, 2007; 홍지연, 2004; 이어진 외, 2010). 이는 어머니가 장애 자녀를 양육 하는데 있어서 외적 보호자원인 사회적 지지를 잘 활용 할 수 있다면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사회적 지지 이외에도,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내적 보호 자원인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들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며,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며 어떠한 인생의 역경에도 맞서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노력에 따라 삶에서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는 일종의 자기 확신이다(김상용, 2009).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 또한 높다(Pearlin & Schooler, 1978; Taylor & Brown, 1988; Zuckerman, 1989).

그러나 장애 자녀의 존재는 부모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게 되어 낮아진 자아존중감은 자기 효능감에 손상을 가져와 새로운 사건이나 상황에 부적절하게 대응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상호 순환적인 형태로 모두에게 어려움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 특히 가족 구성원 중 양육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일상을 힘들게 하며 심리적, 정서적 안녕감을 저해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에 혼란을 주게 되며 이로 인해 건강한 상호작용들을 방해하고 장애아동과 가족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손재익, 2010).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자녀의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모의 중요한 대처자원이다. 이러한 심리적 내적 보호자원인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잘 활용 한다면 장애아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종합해 본다면, 장애아어머니 자신의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장애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외적 보호자원인 사회적 지지, 내적 보호자원인 자아존중감 같은 선행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장애아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양육스트레스에 치중해 있고(이경옥, 2008; 신나영, 2005; 김상호, 2004; 강시열, 2001) 프로그램을 이용한 효과성 검증을 다룬 연구(김선혜, 2010; 정진혜, 2008; 양지은, 2007; 감윤희, 2006; 윤혜정, 2002)들이 대부분으로 양육효능감에 선행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양육효능감에 대한 여러 변인들의 영향을 좀 더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경로로 장애아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장애아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연구(정은주, 2015; 임종수, 2014; 민지용, 2010)의 대상은 다양하였지만 장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2015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통계에 의하면, 전국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5년 88,067명으로 일반학교 학생 수 6,789,267명 대비 1.3%로 나타났다. 일반학생 수

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서적, 육체적,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사회 복지의 역할도 중요한 동시에 가정에서 장애아 어머니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양육효능감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심리적 외적 보호자원인 사회적 지지와 내적 보호자원인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양육지원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관계에서 내적 대처자원인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장애아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가설 1-1 장애아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은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가?

가설 2-1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I-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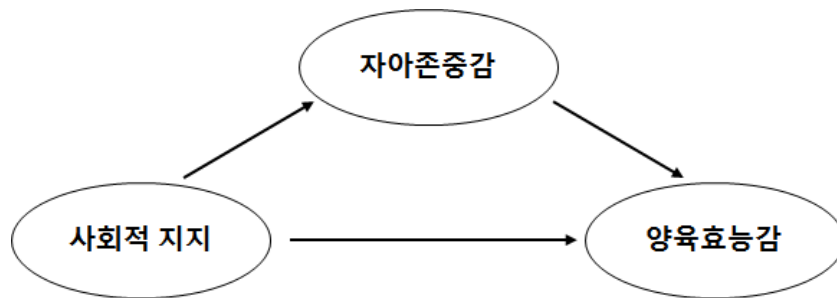


그림 I-1. 연구 모형

4. 용어 정의

이상에서 논의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개념 및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장애아 어머니(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의하면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는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 자녀를 두고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를 말한다.

나.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장애아어머니가 지각하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제공받는 도움이라고 정의하였다. 크게 개인 대 개인, 또는 개인과 집단 간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집합체에 의해 제공되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정서적, 신체적 욕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Cobb, 1976; Coult & Frost, 1982).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 어머니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제공받는 도움으로 박지원의 정의(1985)에 따라 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칭취 등의 ‘정서적 지지’, 문제 해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적 지지’, 필요한 돈이나 물건 등을 제공해주는 ‘물질적 지지’, 그리고 칭찬이나 인정 등 자신을 평가해 주는 ‘평가적 지지’의 네 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 자아존중감(Self-Esteem)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장애아어머니가 자신에게 붙이는 가치라고 정의하였다. 장애아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의 느낌이며, 자기 자신을 존경하면서 바람직하고 가치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Rosenberg, 1965). 또한 자아존중감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인들과 관련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써 자아실현의 토대를 형성하며 성취동기를 증가시켜 생산적인 삶을 기대할 수 있는 변화 가능한 자기감정으로 정의되고 있다(김영애, 2000).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은 6개 분야로 자기비하, 타인과의 관계, 지도력과 인기, 자기주장과 불안이다.

라. 양육효능감(Parenting Efficacy)

본 연구에서 양육효능감은 장애아어머니가 자신을 양육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지각하는 정도(Coleman & Karraker, 1997)이며, 어머니의 역할 완수하고 아동의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대한 어머니 자신의 지각이다(Scheel & Rieckman, 1998).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하게 된 배경과 연구변인인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양육효능감에 대한 개념과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장애아 어머니

장애아 부모는 자녀의 장애를 발견하면 극심한 심리적 충격을 받게 되는데, 슬픔과 심한 무력감을 느끼면서 많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활발한 교류보다는 자기 고립적인 성향을 지니면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안정선, 오승진, 2012). 이는 장애아 부모가 당면하게 되는 현실적 상황에서 유발된 절망감과 장애자녀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에 따른 암담함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강선경, 2002; 김인옥, 2011).

장애아 부모는 장애아를 양육하면서 일반 아동의 부모보다 더 많은 양육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장애아의 어머니가 장애 자녀를 위해서 전적으로 모든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한국의 가족문화에서 장애아 어머니는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즉 장애아를 양육, 교육, 재활치료 과정에 참여시키면서 장애아 어머니가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스트레스는 장애아와의 상호작용과 대처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또한 일반 아동의 부모와 비교하였을 때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장애아 어머니는 통제성 차원의 점수는 더 높고, 애정적인 차원의 점수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진경, 박소연, 최종덕, 2008).

일반적으로 장애아어머니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부담이다.

장애아어머니의 신체적 부담은 일반아 부모 보다 훨씬 더 많다.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아 부모는 장애 자녀를 대신하여 기본적인 신변자립을 도와주어야 하며 장시간 동안 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과 재활치료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적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므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된다. 특히, 중증 장애아의 경우에는 장시간 보호로 인하여 장애아 부모의 피로가 누적되어 육체적 소진을 가져오게 되기도 한다(권요한, 1998).

둘째, 경제적 부담이다.

장애아 부모들이 직면하는 어려움 중 가장 직접적이며 현실적인 문제는 경제적 부담이다. 자녀의 장애로 인한 지속적인 비용지출이 발생되는데 일반 가족 보다 추가적인 경제적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즉 장애아의 치료비 및 재활훈련비, 보장구 및 기기 구입비와 관련된 부담으로 인하여 장애아어머니는 재정적인 측면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증가된다. 또한 장애 자녀의 교육 및 재활치료 기간에 있어서 지속적인 추가 비용과 더불어 어머니의 직업 기회 포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장애아 가족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점이기도 한다(정영선, 조영숙, 2013)

셋째, 심리적, 사회적 부담이다.

장애아를 양육하면서 장애아어머니는 다양한 심리, 사회적인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우선 부부관계에 미치는 측면이다. 일부의 경우에는 부부가 장애아로 인하여 부부간의 결속을 견고하게 다지기도 한다(Scorgie & Sobsey, 2000).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장애아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예상하지 못한 특성을 지닌 장애아를 양육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아 아버지는 장애아 교육 및 재활치료에 있어서 비적극적이고, 부정적이거나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향성이 있다(구본권외, 1998) 이러한 양육태도는 부부간의 갈등원으로 작용하고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쳐 결혼만족도가 낮고 이혼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정영선, 조영숙, 2013)

또한 장애아 어머니는 장애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직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를 통하여 장애아 어머니의 자야실현의 기회 상실, 사회적 고립 등을 경험하게 된다(정대영, 최정아, 2010) 장애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지속적인 좌절로 인한 내재된 슬픔으로 인하여 어머니로서의 능력에 대한 자존감을 낮게 느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은 장애아가 가정에 있다는 것을 외부

에 알리는 것을 꺼리는 은폐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그로인하여 친지, 이웃과의 교류를 차단함으로써 사회적 부담을 경험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정영선, 조영숙, 2013).

2. 제주특별자치도 어머니

제주도 여성들은 타 지역 여성들과 비교해서 독특하게 차별된 점이 있다면, 바로 강인한 생활력이다. 특히 제주도 해녀들의 생활상은 우리나라 여성사는 물론 세계 여성사의 주목을 받을 만큼 억척스럽고 이색적이다. 물론 일반적인 어머니들의 삶도 명실 공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만한 감동과 애환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 어머니들의 생활력과 경제력은 제주여성통계연보에 의하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50대 이상 노년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같은 연령대의 타 지역 여성들보다 현저히 높아, 제주도 어머니들의 강인한 생활력을 그대로 나타낸다(제민일보, 2005. 5. 10.). ‘제주여성, 어떻게 살았을까’에 묘사된 것처럼, 불우한 환경을 타기기 보다 생활전선에서 용기 있게 일어서고 또 도전하면서 오늘의 제주도를 가꾸고 일궈왔다(제주여성사 자료총서, 2001).

이러한 강인한 어머니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아 어머니는 타 지역 어머니와 차별화하여 심도 깊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기존의 장애아 어머니를 조사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중 제주특별자치도만을 심도 깊게 연구한 것은 없었고, 전국 단위의 선행 연구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모집단 수에 비하여 너무 적은 표본수로 장애아 어머니의 특성을 일반화하기엔 부족함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표집 방법면에서도 장애인부모회나 복지관 이용하는 인원만을 임의 표집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상과 같은 지역적, 인구학적 특성에 주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아 어머니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환경 안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사람들은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에 관심을 가졌던 초기학자들은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와 같이 간주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단순히 정서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의 상황과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종류의 지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박정민, 2014; 김경하, 2013; 이에진, 2010; 배경희, 2007).

사회적 지지는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 애정이나 호의, 소속감, 사회적 지지망을 통한 개인의 지지에 대한 접근, 관심, 확신, 도움 등과 같은 개인 상호 작용의 실질적인 거래를 포함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정서적, 물질적 도움(Lin et al., 1999)을 포함한다. Cobb(1976)는 사회적 지지란 자신의 보호와 사랑과 예우를 받고 있거나 상호책임관계에 있음을 믿게끔 하는 정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Kahn(1981)은 다차원적으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그는 사회적 지지란 한 인간의 타인에 대한 신뢰나 시인, 또는 타인에게 물질적 도움이나 정신적 도움을 주는 것 등에서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을 포함하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하였으며 이 개념이 비교적 널리 이해되고 있다(조상윤, 2004; 남기자, 2015 재인용).

또한, Maguire(1996)는 ‘어떤 사람의 사회적 체계, 즉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적 환경 또는 생태적 환경 안에서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이라 하였고, Nolten(1994)은 ‘사회적 지지란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개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적인 행위 또는 태도로서, 개인이 기능을 강화하고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의도를 갖는다’라고 정의하였다(김지혜, 1998 재인용).

이와 같이, 연구자에 따라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념적, 조작적 정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개인이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오영희, 2005).

국내 연구에서 나타난 정의를 보면,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의 개념에 사회적

지지망, 지지형태, 지지욕구로 이루어진 개념차원을 가지고 실제 상황에서 제공받는 지지정도와 사회망의 구성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 및 지지욕구의 충족정도를 반영해 주는 자신의 사회관계에서의 유대감, 자신감, 신뢰감에 대한 인식 정도로 정의했다(남기자, 2015).

사회적 지지 유형과 관련한 연구들을 보면, Cohen &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직접적 지지로 개인의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좋은 의견을 제공해 주는 등의 특성을 지닌다. 두 번째 유형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서 불안과 긴장이 될 때 이를 공감해주고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 줌으로써 소속감과 안정을 유지하게 하여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이다(남기자, 2015).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들에 대한 분류도 학자에 따라 다양한데, Cobb(1976)에 의하면,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인 정서적 지지, 존중되고 가치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인 평가적 지지, 대화할 수 있고 상호의무가 있는 사회관계망에 속한 구성원임을 믿게 해 주는 정보적 지지로 분류하였고, Thoits(1986)는 사회적 지지를 개인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충족되는 정도로 해석하면서,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는 애정, 자존심, 승인, 소속감, 정체감, 안전감 등을 포함한다고 언급하였다(오영희, 2005).

사회적 지지를 여러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 연구한 것을 보면 Schaefer et al.(1981)은 스트레스 사건이 심리적 증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사회적 조직망의 크기와 3 가지 사회적 지지 유형(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물질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가 스트레스 사건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켜 주고 우울을 덜 느끼게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Roos & Cohen(1987)은 사회적 지지를 평가적 지지, 소속감 지지, 물질적 지지, 자존감 지지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 물질적 지지에서만 스트레스 완충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사회적 지지는 일원적 차원의 개념이 아닌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상황적 맥락, 개인 특성, 시간성 및 역동성 구조 등에 맞게 적절한 유형의 지지를 제공하여야 적응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한명숙, 2001 재인용).

최지선·손주영(2010)은 사회적 지지라는 개념이 구조적, 기능적, 평가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적 지지의 원천 즉 연결된 사람(가족

구성원, 친구, 이웃 등)의 유형, 지지의 유형(정서적, 도구적, 교제, 정보 지지, 평가적 지지 등)과 인지된 지지와 실제적 지지의 구분도 필요하다고 하였다(박정민, 2014).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를 4 범주로 분류하였는데 첫째,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험의 행위를 포함한 정서적 지지 둘째, 개인의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적 지지 셋째, 일을 대신해 주거나 돈, 물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시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로 물질적 지지 넷째,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 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평가적 지지로 분류하였다(오영희, 2005).

본 연구에서는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유형을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4. 자아존중감(Self-Esteem)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의 느낌이며, 자기 자신을 존경하면서 바람직하고 가치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Howe & Baldwin(1983)은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붙이는 가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인들과 관련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써 자아실현의 토대를 형성하며 성취동기를 증가시켜 생산적인 삶을 기대할 수 있는 변화 가능한 자기감정으로 정의되고 있다(김영애, 2000).

자아존중감이란 인간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주변과 소속 집단에 필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성공적이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스스로 믿는 '정도'를 말한다. 즉,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스스로에게 갖는 태도 속에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이다(Coopersmith, 1967; 윤혜정, 2002 재인용).

황경자(2002)는 자아존중감은 보편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아개념

(self-concept), 자아정체감(self-identification), 자기수용(self-acceptance), 자기지각(self-percept)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아정체감은 자기 자신의 독특성에 대한 안정된 느낌을 갖는 것으로, 행동이나 사고, 느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일관되게 인식하는 것이다. 개인의 자아정체감은 4 개의 기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간성 차원, 성별 차원, 개별성 차원, 계속성 차원이 그것이다. 안정된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성적 성숙, 추상적 사고 능력의 발달, 정성적 안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부모나 또래 집단의 영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이철수, 2008; 이한나, 2014 재인용).

또한, 자아존중감은 이따금 자아상(Self-Image)이라는 개념과 호환되기도 하지만, 특정한 모습을 뜻하는 이미지보다 더욱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모든 경험을 담고 있는 그릇과도 같아서 자아상이나 일시적인 감정보다 훨씬 더 복잡적이다. 자아존중감은 인지적, 평가적, 감정적 용어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오랫동안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을 반복하면서 쌓아올린 공든 탑과 같다(서동희, 2011). 국립특수교육원(2009)은 자아효능감이 특정한 과제 극복에 대한 자기 자신의 기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긍정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아 개념과 자아존중감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며, 자아존중감은 평가의 측면을 강조한 자아 개념의 특별한 유형으로 설명되기도 한다(이한나, 2012 재인용).

5. 양육효능감(Parenting Efficacy)

양육효능감(Parenting Efficacy)은 부모의 인지적 특성 가운데 하나이며, 자신이 부모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로 정의된다(Johnston & Mash, 1989). 양육효능감은 부모가 자신을 양육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지각하는 정도(Coleman & Karraker, 1997)이며, 부모의 과업을 완수하고 아

동의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지각이다(Scheel & Rieckmann, 1998).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과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부모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Dorsey et al., 1999),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이다(류기자, 2006; 안주선, 2007). 다시 말해, 양육효능감 개념은 대체적으로 자녀 양육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모 능력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다(조인경, 2004). ‘개인이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하나의 신념’이라고 Bandura(1977)가 정의한 바와 같이 양육효능감의 개념은 ‘자아효능감(Self-Efficiency)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아효능감을 양육 차원에 적용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양육효능감은 부모 역할에 적응을 돕고 자녀 양육과 관련되는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동기를 준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로서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Teti & Gelfand, 1991), Dumka et al.(1996)은 양육 역할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음을 지각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였다(이경옥, 2008 재인용).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초기의 척도는 Gibaud-Wallston & Wandersman(1978)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들이 제작한 척도는 양육효능감과 양육만족감을 함께 측정하는 도구였으며, 7문항으로 구성된 양육효능감은 이 도구의 하위영역에 불과하였다(Coleman & Karraker, 1997). Ballenski & Cook(1982)에 의해 개발된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척도는 총 6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세에서 14세까지 각 발달 단계의 양육과업에 대한 효능감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Abidin(1986)의 양육스트레스 척도에는 그 하위 영역 중 하나로 양육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이 영역은 아동행동에 대한 통제, 일상의 요구에 대한 대처, 아동의 까다로움에 대한 조절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Sabatelli & Waldron(1995)은 이 영역을 이용하여 부모의 효능감을 측정하기도 하였다. Wells-Parker et al.(1990)은 대부분 21세 이하의 자녀를 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자아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 척도의 하위영역 중 하나가 양육효능감 영역이며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척도는 Gondoli & Silverberg(1997)의 연구에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Teti & Gelfand(1991)는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효능감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는 유아를 양육하는 일과 관련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척도는 Levi-Shiff et al.(1998)의 연구에서도 사용되었다. Allen(1993)의 양육효능감 척도는 3세에서 10세 사이의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으며, 사랑, 통제,

의사소통, 교육, 전반적인 효능감 등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4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척도는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에 의해 보다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척도라 할 수 있으며, Dorsey et al.(1999), Brody et al.(1999)의 연구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 Elder et al.(1995)의 양육효능감 척도는 11세에서 15세 사이의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으며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하나는 부모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으로 1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다른 하나는 부모가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으로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Dumka et al.(1996)은 3세에서 12세 사이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양육의 지속성, 양육에 대한 노력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 총 25문항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다(최형성, 2002).

또한 최형성(2002)은 Allen(1993), Dorsey et al.(1999), Dumka et al.(1996), Elder et al.(1995), Johnston & Mash(1989), Teti & Gelfand(1991), Wells-Parker et al.(1990), 신숙재(1997), 강희경(1994), 우희정(1993)을 활용하여 양육효능감을 조사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여기에서 전반적인 양육효능감과 의사소통능력 효능감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찾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상담 및 프로그램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자 한다.

6.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간의 관계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가.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관계성 연구

사회적 지지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 및 신체 건강을 긍정적으로 유지시키는데 상

당한 역할을 제공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주된 자원으로써 그 역할을 한다(임현승, 2004). 그리고 사회적 지지는 낮아진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여주고 부정적인 감정을 적게 경험하게 해주며, 높은 양육효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이어진 외, 2010). 따라서 김희순(1989)은 사회적 지지가 높은 장애아동 가족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심리적 안녕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이경희(1993)는 장애아동 가족의 충분한 사회적 지지가 일상생활 등에 있어서 장애아동 어머니의 성공적인 적응에 중요한 변인이 된다고 하였다. 반면, 어용숙(2010)은 사회적 지지의 부족은 장애아동 가족의 심리적 안녕을 방해하고, 가족기능을 약화시켜 자칫 가족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인옥, 2011 재인용).

이현송(2008)은 빈곤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감 즉, 친구의 지지와 가족의 지지 그리고 교사의 지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것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빈곤가정의 아동에게 있어서는 친구의 지지가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박내천(2007)은 청각장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사회적 지지 중 기능적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기능적 사회적 지지가 강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홍지현(2004)은 임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대상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 관계성 연구

신숙재(1997)은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 양육효능감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이 있

으며, 양육효능감과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부적 상관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과 관련되어 사회적 지원이 낮고 스트레스가 높으면 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송미혜(2006)는 유아기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확인하였다. 또한 안지영(2001)은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어머니의 효능감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어머니는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나며, 사회적 지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최형성, 2002). 전인옥·이경옥(1999)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이경옥, 2008 재인용)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Duncan & McAuley(1993)은 사회적 지지와 부모의 양육 행동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양육효능감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을 경우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특히 장애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의 불안감을 높게 하여 양육효능감을 저하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양육효능감에 대한 영향을 통해 양육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수경, 2009 재인용).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어머니들은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한다고 보고하는 결과를 여러 선행연구(Gibaud-Wallston & Wandersman, 1978; Cutrona & Troutman, 1986; Teti & Gelfand, 199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원의 크기나 접촉빈도가 적다는 것은 양육에 대한 효능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Teti & Gelfand, 1991). 양육능력에 대한 지각이 사회적 지지와 관련되어 있다. 배우자와 타인의 지지 역시 어머니 양육에 대한 능력에 확신을 가져온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Bandura(1986)가 언급한 설득(언어적 설득)과 대리적 경험(리모델링)이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듯이, 배우자와 타인의 지원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Bandura(1986)의 자아 효능감의 근원에 대한 설명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이다. 누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이냐에 따라, 어린 나이에 자녀를 출산한 20세 미만의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난다(Teti & Gelfand, 1991). 남편에게서 받는 지원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가족에게서 받는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무관한 경향이 있으며, 출산 후의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 지각에 의미 있는 정적 상관성이 있다(Cutrona & Troutman, 1986). 송미혜(2006)는 유

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효능감을 높인다고 하였다(이경옥, 1999 재인용).

반면,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관련이 없음을 보고한 연구결과(Levy-Shiff et al., 1998)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 관계에서 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의 결과가 매번 일치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사회적 지원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이경옥, 2008; 김수경, 200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자아존중감과 양육효능감 관계성 연구

아직까지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효능감의 직접적인 관계성을 조명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부모의 효능감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개별 프로그램을 통한 부모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효능감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래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자아존중감과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Dorsey et. al.(1999)에 따르면,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을 많이 나타내고 이러한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사회적,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부모와 아동의 심리적 안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하였다. 양육효능감의 증진은 발달장애아와 어머니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감윤희, 2006; 전해인, 2006)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발달장애아에 대한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최인경, 2008).

일반아동 부모보다 장애아동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낮고, 아동의 장애정도가 심각할수록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더 낮게 나타났으며, 일반아동 부모와 장애아동 부모 모두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높게 받는다(최인경, 2008 재인용). 특히,

장애 아동의 출현으로 어머니의 낮아진 자아존중감으로 인하여 양육효능감에 손상을 가져온다고 보고되고 있다(감윤희, 2006). 또한 장애아동 어머니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불안과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반면, 일반아동 어머니들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최인경, 2008 재인용).

특히 인지 능력이 지체된 장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모들은 자녀 양육 시 부딪히게 되는 구체적인 양육 관련 어려움과 더불어 심리 정서적인 부담으로 인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전혜인, 2006; 박지연, 2004; 손유니, 2001), 우울과 같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은 양육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문혁준, 2001).

우울, 자아존중감과 더불어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최인경, 2008).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또래관계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가치감, 유능감 및 적응능력을 발달시킨다(허묘연, 1999). 반면,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또래관계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미칠 뿐만 아니라, 낮은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게 한다(안순미, 2005).

황경자(2002)는 수도권 중복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 등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부적 상관관계),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정적 상관관계) 분석되었다.

반면, 이은혜(2012)는 장애아 어머니의 행복 결정요인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이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분석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제주도 소재 초, 중, 고, 특수학급(110명)과 특수학교(150명), 장애전담 어린이집(40명) 장애인복지관(100명)에 다니고 있는 장애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자는 확률표집 방법인 층화무작위 표본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과 비비례할당법(Dis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을 활용하여 400명을 선정하였고,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Ⅲ-1과 같다.

먼저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중 장애 자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장애아 성별은 남 157명(66.0%), 여 79명(33.2%), 무응답 2명(0.8%)으로 남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학력은 초등 101명(42.5%), 중등 42명(17.6%), 고등 63명(26.5%), 무응답 32명(13.4%)으로 초등에 재학 중이 많았다. 장애 진단명은 발달장애 186(78.2%), 신체장애 33명(13.9%), 정신장애 6명(2.5%), 무응답 13명(5.5%)으로 발달장애가 많이 있었다. 장애진단 세분화를 살펴보면 자폐 62명(26.1%), 지적 112명(48.3%), 뇌병변 30명(66.0%), 지체 5명(66.0%), 간질 1명(0.4%), 무응답 25명(10.5%)으로 발달장애 중 지적장애가 많았다. 장애등급으로는 1급 91명(38.2%), 2급 86명(36.1%), 3급 43명(18.1%), 4급 3명(1.3%) 5급 1명(0.4%), 무응답 14명(5.9%)으로 1, 2급 중증장애아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의 장애정도는 경하다 27명(11.3%), 보통이다 123명(51.3%), 중하다 80명(33.6%), 무응답 8명(3.1%)로 자녀의 장애 정도를 '보통이다'라고 지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III-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장애아 정보)

(N=238)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장애아 성별	남	157	66.0
	여	79	33.2
	무응답	2	0.8
장애아 학력	초등	101	42.5
	중등	42	17.6
	고등	63	26.5
	기타(유치원포함)	32	13.4
장애아 장애진단명	발달	186	78.2
	신체	33	13.9
	정신	6	2.5
	무응답	13	5.5
장애 세분화	자폐	62	26.1
	지적	112	48.3
	뇌병변	30	12.6
	지체	5	2.1
	간질	1	0.4
	무응답	25	10.5
장애 등급	1급	91	38.2
	2급	86	36.1
	3급	43	18.1
	4급	3	1.3
	5급	1	0.4
	무응답	14	5.9
장애정도	경하다	27	11.3
	보통이다	123	51.7
	중하다	80	33.6
	무응답	8	3.1

장애아 부모의 인구 사회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표 III-2).

부모의 평균수입은 100만 원 이하 14명(5.9%), 200만 원 이하 46명(19.3%), 300만 원 이하 60명(25.2%), 400만 원 이하 56명(23.5%), 500만 원 이하 31명(13.0%), 500만 원 이상 22명(9.2%), 무응답 9명(3.8%)으로 나타났다. 부 종교는 기독교 19명(8.0%), 천주교 13명(5.5%), 불교 59명(24.8%), 무교 127명(53.4%), 기타 4명(1.6%), 무응답 16명(6.7%)으로 나타났다. 모 종교는 기독교 32명(13.4%), 천주교 22명(9.2%), 불교 76명(31.9%), 무교 98명(41.2%), 기타 2명(0.8%), 무응답 8명(3.4%)으로 나타났다. 부 나이는 30~40세 미만 32명(14.7%), 50세 미만 119명(50.0%), 60세 미

만 60명(25.2%), 60세 이상 9명(3.8%), 무응답 15명(6.3%)으로 나타났다. 모 나이는 30세 미만 2명(0.8%), 40세 미만 59명(24.7%), 50세 미만 130명(54.7%), 60세 미만 36명(15.1%), 60세 이상 4명(1.7%), 무응답 7명(2.9%)으로 나타났다.

부 학력은 초졸 5명(2.15%), 중졸 7명(2.9%), 고졸 67명(28.2%), 전문대졸 37명(15.5%), 대학교졸 93명(39.1%), 대학원졸 16명(6.7%), 무응답 13명(5.5%)으로 대학교졸이 가장 많았고, 모 학력은 무학 1명(0.4%), 초졸 4명(1.7%), 중졸 12명(5.0%), 고졸 79명(33.2%), 전문대졸 56명(23.5%), 대학교졸 72명(30.3%), 대학원졸 7명(2.9%), 무응답 7명(2.9%)으로 고등졸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 직업은 공무원 29명(12.2%), 전문직 19명(8.0%), 관리직 12명(5.0%), 사무직 23명(9.7%), 자영업 55명(23.1%), 서비스직 17명(7.1%), 생산 및 기술직 15명(6.3%), 건설 및 노무직 17명(7.1%), 무직 7명(2.9%), 기타 27명(11.3%), 무응답 17명(7.1%)으로 부의 직업은 자영업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모 직업을 살펴보면 공무원 8명(3.4%), 전문직 18명(7.6%), 관리직 2명(0.8%), 사무직 14명(5.9%), 자영업 22명(9.2%), 서비스직 25명(10.5%), 건설 및 노무직 3명(1.3%), 주부 및 무직 101명(42.4%), 기타 30명(11.3%), 무응답 15명(6.3%)으로 모의 직업은 주부 및 무직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결혼에 관계된 문항인데 결혼상태 유지 200명(84.0%), 별거 중 3명(1.3%), 이혼 23명(9.1%), 사별 5명(2.1%), 기타 1명(0.4%), 무응답 6명(2.5%)으로 나타났다. 장애아 양육에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참여 조사에서는 없다 52명(21.8%), 1회성 프로그램 104명(43.7%), 연 2~3회 정규프로그램 참석 37명(15.5%), 연속 5회 이상 실시 프로그램 참석 43명(18.1%), 기타 1명(0.4%), 무응답 1명(0.4%)으로 나타났다.

표 III-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부모 정보)

(N=238)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 수입	100만 원 이하	14	5.9
	200만 원 이하	46	19.3
	300만 원 이하	60	25.2
	400만 원 이하	56	23.5
	500만 원 이하	31	13.0
	500만 원 이상	22	9.2
	무응답	9	3.8
장애아	기독교	19	8.0
	천주교	13	5.5
	불교	59	24.8
	무교	127	53.4
	기타	4	1.6
부 종교	무응답	16	6.7
	기독교	32	13.4
	천주교	22	9.2
	불교	76	31.9
	무교	98	41.2
모 종교	기타	2	0.8
	무응답	8	3.4
	40세 미만	32	14.7
	50세 미만	119	50.0
	60세 미만	60	25.2
부 나이	60세 이상	9	3.8
	무응답	15	6.3
	30세 미만	2	0.8
	40세 미만	59	24.7
	50세 미만	130	54.7
모 나이	60세 미만	36	15.1
	60세 이상	4	1.7
	무응답	7	2.9

표 III-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부모 정보)(계속)

(N=238)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부 학력	초등 졸	5	2.1
	중등 졸	7	2.9
	고등 졸	67	28.2
	전문계 졸	37	15.5
	대학 졸	93	39.1
	대학원 졸	16	6.7
	무응답	13	5.5
모 학력	무학	1	0.4
	초등 졸	4	1.7
	중등 졸	12	5.0
	고등 졸	79	33.2
	전문계 졸	56	23.5
	대학 졸	72	30.3
	대학원 졸	7	2.9
부 직업	무응답	7	2.9
	공무원	29	12.2
	전문직	19	8.0
	관리직	12	5.0
	사무직	23	9.7
	자영업	55	23.1
	서비스직	17	7.1
	생산, 기술	15	6.3
	건설, 노무직	17	7.1
	주부, 무직	7	2.9
	기타	27	11.3
모 직업	무응답	17	7.1
	공무원	8	3.4
	전문직	18	7.6
	관리직	2	0.8
	사무직	14	5.9
	자영업	22	9.2
	서비스직	25	10.5
	건설, 노무직	3	1.3
	주부, 무직	101	42.4
	기타	30	12.6
	무응답	15	6.3
결혼	결혼상태 유지	200	84.0
	별거 중	3	1.3
	이혼	23	9.7
	사별	5	2.1
	기타	1	0.4
	무응답	6	2.5
교육프로 참여	없다	52	21.8
	1회성 프로그램	104	43.7
	연 2~3회 정규프로그램	37	15.5
	연속 5회 이상 실시	43	18.1
	기타	1	0.4
무응답	1	0.4	

2. 연구 절차

가. 표본선정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초, 중, 고 특수학급(586명)과 특수학교(428명), 장애전담어린이집(40명),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하는 어머니(100명)를 포함해서 총 1,154명(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5)을 모집단을 설정하였다.

표본 표집방법은 확률적표집 방법인 층화무작위 표본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사용하였고, 층화변인은 제주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장애전담 어린이집 과 서귀포에 소재 한 장애인복지관을 구분하여 4개의 소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소집단의 크기와 각 소집단의 분산정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할당하는 비비례 할당법(Dis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을 사용하여 각 소집단인 제주도 소재 초, 중, 고, 특수학급(110명)과 특수학교(150명), 장애전담 어린이집(40명), 서귀포 장애인복지관(100명)로 표본을 할당하였다. 이렇게 할당된 수만큼의 표본을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법(Simple random sampling)을 사용하여 400부의 전체 표본자료를 설정하였다.

나. 자료수집 방법

본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2015년 10월 26일에서 27일까지 제주시 장애인 부모회 소속 회원들 1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어머니들이 설문문항 응답에 대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설문지를 도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결혼상태 문항에서 ‘동거(주말부부 포함)’ 문항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 ‘결혼상태 유지’로 바꾸었다. 또한 양육효능감 척도 중 ‘부모 노릇’이란 표현에서 ‘노릇’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그 역할과 구실을 닦추어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여 ‘부모 역할’이라고 정정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각 학교장, 특수학급 교사, 학부모 대표 및 임원, 장애인복지관 치료사를 만나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 동의를 얻은 후 특수학급 교사를 통하여 일종의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각 아동의 어머니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일괄 회수토록 협조를 구하였다. 설문지 배부 시에는 연구협조 서신을 설문지 앞에 첨부하여 제작하고, 회수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00부를 배포하였고 249부가 회수되어 62.25%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 11부를 제외한 238명의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되어 자료 유효율은 59.5%를 보였다

3. 측정 도구

가. 사회적 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피험자가 지각하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제공받는 도움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적 지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질문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지각된 지지 수준을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정서적 지지(7문항), 정보적 지지(6문항), 물질적 지지(6문항), 평가적 지지(6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으면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지원(1995)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가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뢰도 계수는 .97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Cronbach's α 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사회적 지지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238)

하위요인	문항내용	문항수	문항	Cronbach's α
정서적 지지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험의 행위를 포함	9	1, 6, 7, 9, 10, 11, 16, 21, 23	.93
정보적 지지	직업의 기회나 직업을 구할 수 있는 방법 등 개인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	7	8, 14, 15, 17, 18, 22, 25	.93
물질적 지지	일을 대신 해 주거나 돈 또는 물건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	4	3, 13, 20, 24	.85
평가적 지지	자신의 행위를 인정 해 주거나 부정하는 것과 같은 자기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	5	2, 4, 5, 12, 19	.88
전체		25		.97

나. 양육효능감 척도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Floyd et al.(1998)의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를 사용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학령기 자녀용으로 개발된 것이나, 안지영(2001)에 의해 우리나라의 문화를 고려하여 번안, 수정되었다. 척도는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는 양육 자신감 요인(8문항)과 부모역할에서 아이를 다루기 어려워하는 양육 어려움 요인(7문항)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문항 중 양육어려움 요인 8개(3, 5, 7, 8, 9, 10, 14, 15)는 역채점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지영(200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가 .7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5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Cronbach's α 는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양육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238)

하위요인	문항내용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양육 자신감	부모역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짐	8	1, 2, 4, 6, 9, 11, 12, 13	.79
양육 어려움	부모역할에 대해 죄책감을 가짐	7	*3, *5, *7, *8, *10, *14, *15	.78
전 체	15	15		.85

* : 역산처리 문항

다. 자아존중감 척도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Coopersmith(1967)가 제작한 Self - Esteem Inventory를 강종구(1986)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가지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었다. 하위요인은 자기비하 요인(5문항), 타인과의 관계 요인(7문항), 지도력과 인기 요인(6문항), 자기주장과 불안 요인(7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총 25문항 중 16문항(1, 2, 3, 6, 7, 9, 11, 13, 15, 16, 17, 18, 21, 22, 23, 25) 역 채점하여 계산한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거나 혹은 자신을 존중하고 좋아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것으로 본다. 강종구(1986)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가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91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Cronbach's α 는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238)

하위요인	문항내용	문항수	문항	Cronbach's α
자기비하	자신을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장점 보다 단점이 많다고 생각하 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못 느끼는 경향	5	*1, *3, *11, *15, *16	.68
타인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가족의 이해나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	7	*6, *7, *9, 10, 20, *21, *22	.77
지도력과 인기	남 앞에서 말하기가 어렵고 자신 이 남 보다 매력이 적다고 느끼는 경향	6	*2, 5, 8, 14, *18, *25	.68
자기주장과 불안	결정하기 어렵고 생활태도에 자신 이 없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 기는 경향	7	4, 12, *13, *17, 19, *23, 24	.76
전 체		25		.91

* : 역산처리 문항

4.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한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장애아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Sobel, 1982)를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에 대한 기술 통계분석은 다음의 표 IV-1과 같다.

주요 변수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점수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 전체 평균은 3.37점, 자아존중감 전체 평균은 3.37점, 양육효능감 전체 평균은 2.46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을 구성하는 관찰변수 평균값은 최저 2.37점에서 최고 3.69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사회적 지지(5점 척도), 자아존중감(4점 척도), 양육효능감(4점 척도)을 고려해 볼 때 모든 변수는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료의 정규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왜도의 절대값이 3 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10 미만으로 나타나야 한다(Kline, 1998; 정소희, 2007에서 재인용).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을 살펴보면 왜도는 0.10에서 0.85, 첨도는 0.38에서 1.76의 범위로 나타나 변수들의 분포가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1.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량

(N=238)

구분	분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반응척도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3.50	.69	-0.67	1.22	1-5
	정보적 지지	3.57	.72	-0.52	1.18	1-5
	물질적 지지	3.43	.74	-0.68	1.00	1-5
	평가적 지지	3.56	.68	-0.85	1.60	1-5
	전체	3.37	.38	-0.70	1.39	1-5
자아존중감	자기비하	3.69	.46	-0.10	0.38	1-4
	타인과의 관계	3.57	.43	-0.38	0.99	1-4
	지도력과 인기	3.20	.41	-0.52	1.39	1-4
	자기주장과 불안	3.10	.42	-0.33	1.49	1-4
	전체	3.37	.38	-0.46	1.76	1-4
양육효능감	양육 자신감	2.54	.40	-0.13	1.27	1-4
	양육 어려움	2.37	.42	0.44	1.26	1-4
	전체	2.46	.36	0.19	1.73	1-4

2.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

연구문제 1의 장애아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IV-2와 같다.

이일현(2014)에 의하면 상관계수의 크기는 뚜렷한 기준은 없지만, $0.46 \leq |r|$ 이면 효과 크기를 0.8로 효과가 크다고 보았으며, $0.29 \leq |r| < 0.46$ 이면 0.5로 중간정도, $0.10 \leq |r| < 0.29$ 이면 0.2로 낮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표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은 $r=.61(p<01)$ 로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은 $r=.43(p<01)$ 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01 수준에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양육효능감은 $r=.75(p<01)$ 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며 .01

수준에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도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IV-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구분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
사회적 지지	1		
자아존중감	.61**	1	
양육효능감	.43**	.75**	1

** $p < .01$

3.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연구문제 2의 장애아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3과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IV-1과 같다.

1단계는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으로,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독립변인인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을 37.9%($R^2=.379$) 설명하였으며 베타계수의 값은 .61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616, p<.001$). 이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가정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다.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독립변인인 사회적 지지는 종속변인인 양육효능감을 19.3%($R^2=.19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타계수의 값은 .43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439, p<.001$). 이는 위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을 유의미하게

예언한다는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3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고 있으며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경우 양육효능감을 설명하는 정도가 높아졌는지를 살펴보는 과정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인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는지를 보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를 위하여 독립변인인 사회적 지지와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투입해서 종속변인인 양육효능감의 예언정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에 따르면, 독립변인인 사회적 지지와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은 종속변인인 양육효능감을 설명하는 영향력이 57.1%($R^2=.571$)로, 2단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대해 19.3%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에 비해 3단계 설명력이 57.1%로 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2단계에서 나타난 독립변인의 효과가 유의하게 줄어들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3단계에서 나타난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표준화계수(β)는 -.010로, 2단계에서 나타난 사회적 지지의 표준화계수($\beta = .439$)보다 그 값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독립변인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음을 뜻한다.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 남은 독립변인의 효과가 '0'에 가까울수록 매개효과는 크며, '0'이 되면 완전한 매개효과를 지닌다(Kenny & Judd, 1984). 또한 우종필(2012)에 의하면 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매개변인이 개입된 상태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상태로 변하면 완전매개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 관계는 자아존중감이 개입되면, 개입되기 이전 보다 효과가 β 값이 -.010으로 적어졌을 뿐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완전매개(Full mediation)변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3.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R^2	adj. R^2	F
1	사회적 지지	→ 자아존중감	.600	.050	.616***	.379	.377	142.372***
2	사회적 지지	→ 양육효능감	.427	.057	.439***	.193	.189	55.423***
3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 양육효능감	-.010 .763	.052 .053	-.010 .762***	.571	.567	153.808***

Sobel Z 통계량	B	SE	Z값	p
사회적 지지 → 자아존중감	.600	.050	9.218	<.001
자아존중감 → 양육효능감	.763	.053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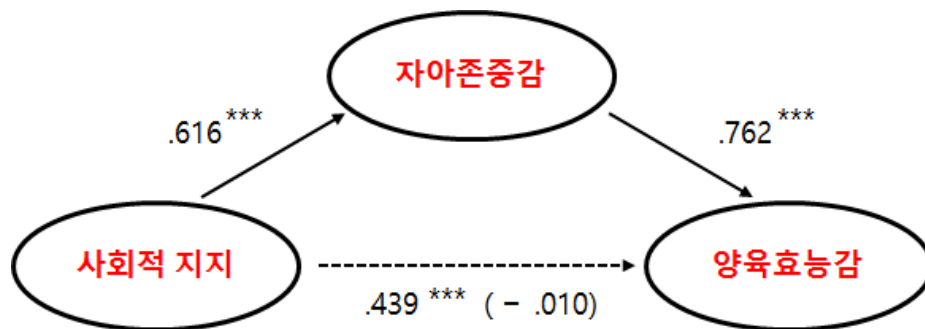


그림 IV-1.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위에 제시된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매개변인의 영향력을 간편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직접효과 A의 비표준화계수와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직접효과 B의 비표준화계수 간의 표준오차를 이용하여 Z통계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Z점수의 절대값이 1.96 이상일 경우 $p < .05$ 수준, 2.58 이상일 경우 $p < .01$ 수준, 3.30 이상일 경우 $p < .001$ 수준에서 매개효과

가 유의한 것으로 본다(Sobel, 1982). 본 연구에서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은 9.21($p < .001$)이다. 따라서 장애아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 관계에 있어 유의미한 수준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

V. 논의

1. 주요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어머니가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외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장애아어머니의 외적, 내적인 대처자원을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장애아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장애아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우선, Pearson 상관 분석 결과에서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에 관계는 국내, 해외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는데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들은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송미혜, 2006; 최형성, 2002; Gibaud-Wallston & Wandersman, 1978)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장애아어머니의 외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장애자녀에 대한 양육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과 양육효능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기존의 연구(이한나, 2014; 홍영진, 2001; 강정민, 2000, Heppner et al., 198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이 양육효능감을 증가시키거나 개선하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외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와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게 되면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게 인식하는 자아존중감이 발달한다는

기존의 연구(김재근, 2005; Hoffman, 1988; Coopersmith, 1967)를 지지한다. 또한 학생, 성인, 노인 등 다양한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연구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문제 2. 장애아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가?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모두 완전매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자아존중감이라는 매개변수가 생겼을 때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장애아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자아존중감이라는 제3의 변인이 개입되면 그 영향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완전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인으로 투입되면 비록 사회적 지지가 낮더라도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양육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아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면 사회적 지지가 낮더라도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외부로부터 제공받는 자원인 사회적 지지가 단순히 효율적인 양육능력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내적 심리의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하여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비장애아 어머니 보다 장애아 어머니가 자녀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Singer & Parkas, 1989), 이러한 장애아 어머니에게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이 양육효능감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완전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이는데 있어서 사회적 지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있더라도 자아존중감을 높임으로써 완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양육효능

감을 높이기 위해서 외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 제공뿐만 아니라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 자신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인정할 때, 자아존중감이 형성되어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 있고 성공적이라고 여기게 된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행동에 자신감을 가지고 진취적이고 리더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어 장애아 양육에 있어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자아존중감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장애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활발히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장애아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은 많이 있지만 어머니를 위한 지원서비스는 현재 취미 활동에 많이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닌, 어머니의 과거의 경험, 자라온 과정에 대한 기억, 주변의 환경 등에 많은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장애 특성으로 인한 영향을 받아 낮아진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데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어머니 자신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아 어머니들을 위한 개인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상담을 통하여 장애아 자녀 양육 과정에서 타인에게 말 못 하는 어려움과 내적 갈등을 겪는 어머니에게 상담 장면에서 정서적, 정보적 지지를 공급하고,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을 효과적으로 개입함으로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을 증대 시킬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즉 상담할 시간과 여건이 되지 않는 대상에게 상담자가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서비스(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장애아 어머니에게도 똑같이 도입함으로 장애아 어머니들도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상담소에 가기 힘든 경우, 상담자가 집으로 찾아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아 어머니들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아 어머니들은 일반적인 학부모 모임과 다르게 장애아를 둔 어머니

들끼리 만나기가 어렵다. 장애부모회를 통하여 학부모들끼리 만남이 이루어져도 장애 자녀의 특성상 자녀를 동반하여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모임이 적고, 참여가 저조하여 어머니들 서로 간의 교류와 정보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통하여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의 집단 활동을 통하여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는 과정 속에 치료적 효과가 이루어진다면 장애아 어머니 스스로 자신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방법론적, 실제적 측면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은 모두 전국 단위의 조사가 대부분 이었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아어머니의 모집단의 수에 비하여 표본 집단의 수가 너무 적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아어머니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화하기엔 부족함이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아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아 어머니를 심도 깊게 조사하여 이들의 정서를 좀 더 세심하게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둘째, 연구 대상 표집 방법 면에서 확률적 표집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인부모회를 비롯한 종합복지관으로 국한하여 조사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비확률적 표집 방법인 임의표집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모집단의 대표성을 파악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아어머니의 모집단을 확률적 표집 방법인 층화무작위 표본추출법과 비비례 할당법을 사용하였고, 도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장애전담 어린이집,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학교장과 학부모 대표를 만나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으로 배포하여 수거 하는 등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셋째, 장애아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 연구들은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연구들이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머니의 외적자원인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 관계에서 내적자원인 자아존중감이 완전매개변인으로 작용됨을 밝혀냄으로써 외적 자원도 중요하지만, 상담현장에서 내적 자원에 더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에 있어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서 한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는 것이다. 장애아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시간의 흐름과 어떤 형태로 발달되는지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 역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양육효능감에 도움이 되는 변인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주 양육자가 어머니여서 연구 대상자를 어머니로 하였지만, 요즘은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하여 많아졌고 적극적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장애자녀에 대한 양육효능감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인 아버지 연구가 시행된다면 시사점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대부분 가정으로 배부하여 장애아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들을 조사하였다. 가정에서 장애아를 양육하며 설문지에 성실히 응답하기엔 많은 어려움 있었으리라 사료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위한 직접 면접이나 질적 연구 등으로 다양한 대안의 방법을 이용하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넷째, 본 연구는 장애아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의 변인들을 전체적인 관계성 및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 세 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위변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각 하위변인들 간의 연결 관계 및 인과관계를 검증할 경로분석 및 구조 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연구 분석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감윤희(2006), 정서행동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와 부모효능감 향상을 위한 교류분석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민정(2000), 사회적 지지가 가출청소년의 일에 대한 태도, 자립의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출청소년 부랑경험이 정도와 형태별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종구(1986), 자아개념, 진로의식성숙 및 학업성취도가 직업 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희경(1994),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20대 출산모와 고령출산자의 비교,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립특수교육원(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 김경하(2013), 사회적 낙인과 사회적 지지가 HIV/AIDS 감염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상용(2009), 발달장애자녀 어머니의 웰빙 연구: 가족응집력과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옥·김성훈,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들간 양육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의 차이: 국공립 통합 보육시설 어머니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인권연구, Vol. 5, No. 1, pp.17-29.
- 김수경(2009), 장애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애(2000), 자기성장프로그램이 대인관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연(2005), 장애아동어머니와 비장애아동어머니의 문제해결능력, 낙관성, 자아강도, 자기효능감 비교 연구,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옥(2011), 장애아동 유형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

- 구, 위덕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근(2005), 자기효능감, 학교학습동기, 사회적 지지가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혜(1998), 청소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순(1989), 정서·정보적 지지모임이 만성질환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기자(2015), 장애아동 특성,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기자(2006),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혁준(2001), 부모의 효율적 훈육태도에 관련된 변인 분석, 아동학회지, Vol. 22, No. 1, pp.35-49.
- 박은신(2004),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내천(2007), 청각장애아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민(2014), 사회적 지지가 지체장애인의 장애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우울과 낙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연(2004), 어머니 특성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조기교육 정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경희(2007), 장애아동 가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가 부모의 양육부담 및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동희(2011), 자존감과 수치심의 관련성 연구,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유니(2001), 능력강화를 위한 가족지원프로그램이 장애아동 부모의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과 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 : 정신지체학교 초등부 학

- 부모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재익(2010), 장애아동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가족탄력성의 구조적 관계: 비장애아동 가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미혜(200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과의 관계,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Vol. 19, No. 1, pp.27-42.
- 안순미(2005), 어머니 대상관계 및 양육행동 변화를 위한 집단치료프로그램 개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주선(2007), 가족탄력성에 기반한 집단프로그램이 장애아동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어용숙(2010), 장애아동 주양육자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가 가족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Vol. 26, No. 1, pp.209-226.
- 오영희(2005), 지체장애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자원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종필(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Amos 4.0~20.0 공용,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우희정(1993),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간의 인과모형 탐색,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혜정(2002), 집단미술치료가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모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옥(2008), 장애아동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1993), 장애 아동의 가족 스트레스와 적응의 구조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어진, 정경미, 진혜경(2010), 발달장애아동의 섭식문제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양육자의 사회적 지지와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Vol. 26, No. 1, pp.181-208.
- 이예진(2010), **발달장애아동 어머니가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2012), **장애아동 어머니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증진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일현(2014), **EasyFlow 회귀분석**, 서울: 한나래
- 이철수(2008), **사회복지학사전**, 서울; 비상
- 이한나(2014), **발달장애자녀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 지지를 조절효과로**,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송(2008), 빈곤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사회복지 학생연구논총**, Vol. 1, pp.104-161
- 임현승(2004), 사회적 지지가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pp.639-656.
- 전인옥, 이경옥(1999), 유아의 자기 효능감에 대한 인과모형 탐색, **유아교육연구**, Vol. 19, No. 1, pp.169-188.
- 전재명(2012),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긍정적인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혜인(2006), **부모결연프로그램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및 가족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소희(2007), **청소년기 부모양육행동과 비행의 종단적 상호작용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제주도(2001), **제주 여성, 어떻게 살았을까**, 제주여성사 자료총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5), **제주특별자치도 특수학급 현황**
- 조상운(2004), **노숙인의 취업유지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

-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인경(2004), **어머니의 인식, 양육효능감, 유아의 인지 능력, 공유하는 정서와 어머니의 유관조절 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중앙일보(2015), **자폐아를 둔 어느 어머니의 녀두리**(2015년 5월 7일 기사)
- 최인경(2008), **발달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지선, 손주영(2010), **장애인의 사회통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경제활동참여, 사회적 지지, 장애정체감, 차별경험과의 관계검증**,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12, pp.35-56
- 최형성(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명숙(2001),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와 수행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가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묘연(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영진(2001), **자존감, 스트레스 및 부모의 양육방식이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지현(2004), **임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지가 여성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여성문화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경자(2002), **중복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idin, R. R.(1986), *Parenting Stress Index*.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llen, C.(1993), *An Investigation of Parenting Efficac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 Ballenski, C. B., & Cook, A. S.(1982), **Mother's Perceptions of Their Competence in Managing Selected Parenting Tasks**, *Family Relations*, Vol. 31, No. 4, pp.489-494.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4, No. 2, pp.191-215.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1173-1182.
- Brody. G. H., Flor, D. L., & Gibson, N. M.(1999), Linking Maternal Efficacy Beliefs, Developmental Goals,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Competence in Rural Single-Parent Africa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Vol. 70, No. 5, pp.1197-1208.
-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Vol. 38, No. 5, pp.300-314.
- Cohen, S., & Hoberman, H.(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13, No. 2, pp.99-125.
- Coleman, P. K., & Karraker, K. H.(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Vol. 18, pp.47-85.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H. Freeman.
- Crnic, K. A., Friderich, W. N., & Greenberg, M. T.(1983), Adaptation of families with mentally retarded children: A model of stress, coping and family ecology,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Vol. 88, No. 22, pp.125-138.
- Cutrona, C. E., & Troutman, B. R.(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Vol. 57, No. 6, pp.1507-1518.
-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 Group(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61, No. 2, pp.295-305.
- Dumka, L. E., Stoerzinger, H. D., Jackson, K. M., & Roosa, M. W.(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Vol. 45, No. 2, pp.216-222.
- Duncan, T. E., & McAuley E.(1993), Social Support and Efficacy Cognitions in Exercise Adherence: A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Vol. 16, No. 2, pp.199-218.
- Dyson, L. L.(1993), Response to the presence of a child with disability: parental stress & family functioning over time,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Vol. 98, No. 2, pp.207-218.
- Elder, G., Eccles, J., Ardelt, M., & Lord, S.(1995), Inner-City Parents under Economic Pressure: Perspectives on the Strategies of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57, No. 3, pp.771-784.
- Floyd, F. J., Gilliom, L. A., & Costigan, C. L.(1998), Marriage and the Parenting Alliance: Longitudinal Prediction of Change in Parenting Perceptions a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Vol. 69, No. 5, pp.1461-1479.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Gondoli, D. M., & Silverberg, S. B.(1997), Maternal Emotional Distress and Diminished Responsiveness: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al Perspective Ta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3, No. 5, pp.861-868.
- Harris, V., & McHale, S. M.(1989), Family Life Problems, Daily Caregiving Activities,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others of Disabled Children,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Vol.

- 94, No. 3, pp.231- 239.
- Heppner, P. P., Reeder, B. L., & Larson, L. M.(1983), Cognitive Variables Associated with Personal Problem-Solving Appraisal: Implications for Counselling,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Vol. 30, No. 4, pp.537-545.
- Hoffman, E.(1988), *The Right to be Human*, Los Angeles: Jeremy P. Tarcher.
- Howe, K. R., & Baldwin, B. A.(1983), The Effects of Evaluative Sequencing on Performance, Behavior, and Attitudes, *The Accounting Review*, Vol. 58, No. 1, pp.135-142.
- Johnston, C., & Mash, E. J.(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18, No. 2, pp.167-175.
- Kahn, R. L.(1981), *Work and Health*, Wiley: New York.
- Kenny, D., & Judd, C. M. (1984). Estimating the Nonlinear and Interactive Effects of Latent Variables, *Psychological Bulletin*, Vol. 96, No. 1, pp.201-210.
- Kline, R. B.(199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London: Guilford Press.
- Levy-Shiff, R., Dimitrovsky, L., Shulman, S., & Har-Even, D.(1998), Cognitive Appraisals, Coping Strategies and Support Resources as Correlates of Parenting and Infant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4, No. 6, pp.1417-1427.
- Lin, N., Ye, X., & Ensel, W. M.(1999), Social Support and Depressed Mood: A Structural Analysi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40, No. 4, pp.344-359.
- Maguire, L.(1996), **사회복지체계론: 기초이론과 실천사례**(장인협 역), 사회복지실천연구소: 서울.
- Mash, E. J., & Johnson, C.(1983),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elf-esteem, and mother's reported stress in younger and older hyperactive and normal children, *Journal of*

-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51, pp.86-89.
- Nixon, C. D., & Singer, G. H. S. (1993), A group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for excessive parental self-blame and guilt,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Vol. 97, No. 6, pp.665-672.
- Nolten, P. W.(1994),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Roos, P. E., & Cohen, L. H.(1987), Sex Roles and Social Support as Moderators of Life Stress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2, No. 3, pp.576-585.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ce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Jersey, USA.
- Sabateli, R. M., & Waldron, R. J.(1995), Measuring Issues in the Experiences of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57, No. 4, pp.969-980
- Schaefer, C., Coyne, J. C., & Lazarus, R. S.(1981), The Health-Related Function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Vol. 4, No. 4, pp.381-406.
- Scheel, M. J., & Rieckmann, T.(1998), An Empirically Derived Description of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for Parents of Children Identified as Psychologically Disordered,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Vol. 26, No. 1, pp.15-27.
- Seltzer, M. M., Krauss, M. W., & Tsunematsu, N.(1993), Adults with down syndrome & their aging mothers: diagnostic group differences.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Vol. 97, No. 5, pp.496-508.
- Sobel, M. E.(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Leinhardt S, editor. *Sociological methodology*,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pp. 290-312.

- Teti, D. M., & Gelfand, D. M.(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Vol. 62, No. 5, pp.918-929.
- Thoits, P. A.(1986), Social Support as Coping Assist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54, No. 4, pp.416-423.
- Wells-Parker, E., Miller, D. I., & Topping J. S.(1990), Development of Control-of-Outcome Scales and Self-Efficacy Scales for Woman in Four Life Ro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54, No. 3-4, pp.564-575.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Disabled Children's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Cho, Ji Yeun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Kim, Sung Bong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disabled children's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For this study, research problems were arranged as the followings:

1. Are disabled children's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parenting efficacy significantly related to each other?
2. Is there a mediating effect between disabled children's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The study selected 400 mothers from 1154 mothers who use special-education classes, special-education schools, special daycare centers, and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s through the probabilistic sampling: stratified random sampling, and dis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 The data was collected from November 1st to 30th, in 2015. Among 400 answers, 249 answers were collected with 62.25% collect rate. Also, among the collected answers, 238 answers excluding insincere answer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with 59.5%

effective rate.

For the study measurement tool,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items which measur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parenting efficacy was used.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SPSS for Window 20.0.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overall data, the average and the standard deviation of each variable were calculated, examining normality of data. In addition, Cronbach's α was executed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each variable,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relations among variables. Lastly, hierarchical analysis was executed to have a look at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In summary,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the followings:

First,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parenting efficacy were significantly related.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effect were positively correlated; self-esteem and parenting efficacy were also positively correlated;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were positively correlated.

Secondly, self-esteem had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In conclusion, disabled children's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is a variable in increasing the parenting efficacy, and self-esteem is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above two variables. The result contributes to establish the base data of counseling strategies and program development to enhance the self-esteem, which is for developing disabled children's mothers' parenting efficacy.

Key word: disabled children's mother, social support, self-esteem, parenting efficacy, mediating effect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귀하와 같은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장애 아이를 둔 어머니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소중한 응답은 앞으로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서적, 사회적 복지 증진 위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문지에 있는 문항들은 맞거나 틀린 답이 없으며, 단지 어머니의 느낌이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통계법 제 1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약속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11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 김 성 봉 교수

연구자 : 조 지 연 석사과정

연락처 : 010-2754-6961

이 메 일 : chojiyeun@hanmail.net

□ 어머님 본인의 가정과 장애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장애 자녀의 성별 : 남(), 여()

2. 장애 자녀의 나이 : 만_____세
장애 자녀의 현재 학력은(중퇴의 경우 최종학력을 적어주십시오)?
① 초등_____학년 ② 중등_____학년 ③ 고등_____학년
④ 전문대_____학년 ⑤ 4년대학 _____학년

3. 장애 자녀의 장애진단명 : _____장애 _____급
(진단서의 장애등급을 꼭 기입해 주십시오, 복합장애일 경우 모두 적어주십시오)

4. 귀하(어머니)가 생각하는 장애 자녀의 장애정도(아래의 3가지 중에서만 답해 주십시오)
①경하다(가벼운 정도) ②보통이다(중간 정도) ③중하다(심한 정도)

5. 장애 자녀의 출생 순서 : _____남 _____녀 중 _____째

6. 요즈음 귀하 가정의 월 평균 총수입은 얼마입니까? ()
(맞벌이 부부일 경우는 수입을 합산하여 표시 해 주세요)
① 100만원 이하 ② 200만원 이하 ③ 300만원 이하
④ 400만원 이하 ⑤ 500만원 이하 ⑥ 500만원 이상

7. 아버지의 종교는? (), 어머니의 종교는? ()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 _____

8. 아버지(장애 자녀 아버지)의 연령 : 만_____세
어머니(장애 자녀 어머니)의 연령 : 만_____세

9. 귀하와 귀하 배우자의 최종 학력은?

구분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퇴포함)	중학교 졸업 (중퇴포함)	고등학교 졸업 (중퇴포함)	전문대학 졸업 (중퇴포함)	대학졸업 (중퇴포함)	대학원 졸업 (중퇴포함)
아버지 (남편)							
어머니 (아내)							

10. 귀하와 귀하 배우자의 직업은?

구분	공 무 원	전 문 직	관리직 (부장, 사장 이상)	사무직 (회사원 과장 이하)	자영업 (장사 등)	서비스직 (이미용 등)	생산, 기술직	건설, 노무직	주부, 무직	기타
아버지 (남편)										
어머니 (아내)										

11. 현재 결혼상태 ()

- ① 결혼상태 유지(주말부부 포함) ② 결혼하였으나 현재 별거 중
 ③ 이혼 상태 ④ 사별
 ⑤ 기타 : _____ 예) 재혼의 경우 등, 자세히 기입해 주십시오

12. 부모 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

- ① 없다 ② 1회성 프로그램 ③ 연 2~4회 정도의 정규 프로그램
 ④ 연속 5회 이상 실시하는 프로그램

□ 일상에서 느끼시는 어머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응답에 **V표**를 해주십시오.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가끔 내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고 바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3. 나에게서는 고쳐야 할 점이 많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어렵지 않게 마음을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재미있게 지낸다.	①	②	③	④
6. 가족 중엔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①	②	③	④
9. 우리 가족은 나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한다.	①	②	③	④
10. 우리 가족은 대체로 내 기분을 이해해 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매사를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비교적 남보다 행복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13. 나의 생활은 뒤죽박죽이다.	①	②	③	④
14. 대체로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을 따라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5. 나 자신에 대해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집을 나가 버리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①	②	③	④
17. 종종 내가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외모가 그리 멋진 편이 못된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할 말이 있을 때 대체로 그 말을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0. 우리 가족들이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21.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별로 사랑받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22. 어떤 때는 가족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23.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실망을 느낄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24. 나는 모든 것이 그다지 어렵게 생각되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25.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의지해도 될만큼 강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 양육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느끼신 것과 가장 가까운 응답에 V표를 해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부모 역할은 내가 이전에 생각한 것보다 어렵지 않다.	①	②	③	④
3. 부모 역할은 나를 지치고 진 빠지게 한다.	①	②	③	④
4.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5. 가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때가 많아서, 아이 기르기에 대한 책을 더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6. 다시 아이를 키우더라도,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키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7. 종종 아이를 실망시킬까봐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8. 부모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9.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결코 좋은 부모가 될 것 같지 않다.	①	②	③	④
10. 때로 아이를 소홀히 하는데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11. 부모로서 모든 책임을 잘 해내는 것은 나의 능력 중의 하나이다.	①	②	③	④
12. 부모 역할은 많은 책임과 문제가 따르지만, 나는 항상 그런 어려움을 잘 처리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3. 내가 아는 다른 부모들과 비교할 때, 나는 아이를 훈육하는데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4. 아이를 키우면서 사랑과 훈육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5. 아이에 대해 아무런 통제력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어머니의 주위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진술문에서 ‘그들’은 귀하에게 ‘도움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위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그들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그들은 내가 취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그들은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나 물건을 최선을 다해 마련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5. 그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일을 인정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6. 그들은 함께 있을 때 친밀감을 느끼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7. 그들은 나의 문제를 기꺼이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8. 그들은 배울점이 많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9. 그들은 자신이 직접 도와줄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나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그들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그들은 내가 잘 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그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3. 그들은 나의 일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그들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5. 그들은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위해 시간을 내어 주고 상의를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그들은 (주위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그들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7. 그들은 내가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해 내가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그들은 내가 결정을 못 내리고 망설일 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용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19. 그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충고를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0. 그들은 내가 필요로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빌려 준다.	①	②	③	④	⑤
21. 그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준다.	①	②	③	④	⑤
22. 그들은 나에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3. 그들은 내가 아플 때 나의 일을 대신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4. 그들은 내가 기분이 나쁠 때 나의 기분을 이해해 주고 기분을 전환시켜 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그들은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끝까지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